

또다른 해석을 가미한 여성 빌레레 데이트 워치

블랑팡(Blancpain)은 여성용 캘린더 타임피스를 추가하며 여성 모델 컬렉션 라인업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날짜 기능이 챕터 링 안에 섬세하게 통합된 오벌형 창을 통해 단독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가독성을 높인 커다란 다이얼이 아름다운 균형미를 보여주는 모델이 탄생했다.

여성 시계에 있어 블랑팡은 결코 가볍지 않은 존재감을 지니고 있다. 블랑팡 매뉴팩처는 1930년 여성을 위한 첫 오토매틱 손목 시계를 소개하며 여성 시계 역사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그 때까지 오로지 남성의 관심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워치메이킹 예술이 남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한 단계 진화한 것이다. 프레데릭-에밀 블랑팡(Frédéric-Emile Blancpain)의 충성스런 직원이었던 베티 피슈테르(Betty Fiechter)는 블랑팡을 인수하고 여성 대표이자 블랑팡의 소유주가 되면서 블랑팡의 여성 시계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블랑팡은 이러한 브랜드 고유의 유산을 반영하며 빌레레(Villeret) 라인에서 새로운 여성 타임피스를 공개한다. 날짜 기능을 갖춘 이 모델은 섬세한 미학적 요소와 곡선 디테일들이 눈길을 끈다. 날짜 창은 타원 형태를 띠고 있는데, 빌레레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연속으로 놓인 숫자들 역시 새롭게 디자인해 곡선의 느낌을 살짝 더 가미한 폰트로 변형했다. 라운드 형태의 더블-스텝 베젤과 주요 인디케이션을 담당하는 컷-아웃 세이지 나뭇잎 형태 바늘 등 빌레레 컬렉션의 주요 특징들과 새로운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있다. 이 새로운 모델의 비율은 모든 구성 요소들 간의 완벽한 조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심하게 결정한 것이기도 하다. 스틸과 레드 골드로 만날 수 있는 33.2mm 사이즈 케이스에는 48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빌레레 컬렉션에서 일반적으로 그렇듯 스틸 버전은 화이트 다이얼을, 레드 골드 버전은 오팔린 다이얼을 매치했고 모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고객에게 더욱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기 위해 각각의 모델은 다이아몬드를 세팅하지 않은 버전도 선보인다. 이렇게 네 가지로 선보이는 타임피스는 악어가죽 스트랩 혹은 밀 마이유(*mille mailles*) 브레이슬릿 버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다섯 개의 인터체인저블 스트랩 키트도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스타일리시한 빌레레 우먼 데이트(Villeret Women Date)지만 그 안에서는 워치메이킹 기술력이 박동하고 있다. 이 타임피스는 특히 정확성을 보장하는 실리콘 밸런스-스프링을 갖추고 4일 파워리저브 가능한 1151 무브먼트를 탑재하고 있다. 사파이어 케이스백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는 무브먼트는 전통적인 워치메이킹의 미학적 코드를 반영해 장식했다. 거의 2백년 전 처음 만들어진 벌집(honeycomb) 모티브를 반영한 기요셰(*guilloché*) 패턴으로 장식한 로터도 그 좋은 예다.